

◆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
요한계시록 8:3-5



[서론]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이 신속히 오거나 기대한 것 이상으로 올 때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기도학교’에는 졸업생 보다는 중퇴생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본론]

계시록 8장은 어린 양이 일곱째 인, 곧 마지막 인을 떼시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일곱째 인을 떼릴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 이 때 요한은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선 것을 본다. 나팔이 울리게 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순간 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위에 섰는데, 자세히 보니 ①_____를 손에 들고 있었다. 바로 땅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②_____가 담긴 향로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 위에 이 기도가 쌓이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요한의 눈앞에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제단 위에 선 한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쏟아 붓는다. 그러자 땅에 천둥과 요란한 소리,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 인을 떼 때마다 요란한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어김없이 일어난다. 과연 어린 양이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종말적 현상들이 지상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보인다. 바로 성도들의 ③_____다.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전환기에 왜 이런 광경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 안에 담긴 아름다운 향기라는 확신을 주심으로써 ④_____중에 있는 사도요한과 지상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이 드라마틱한 환상을 통해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도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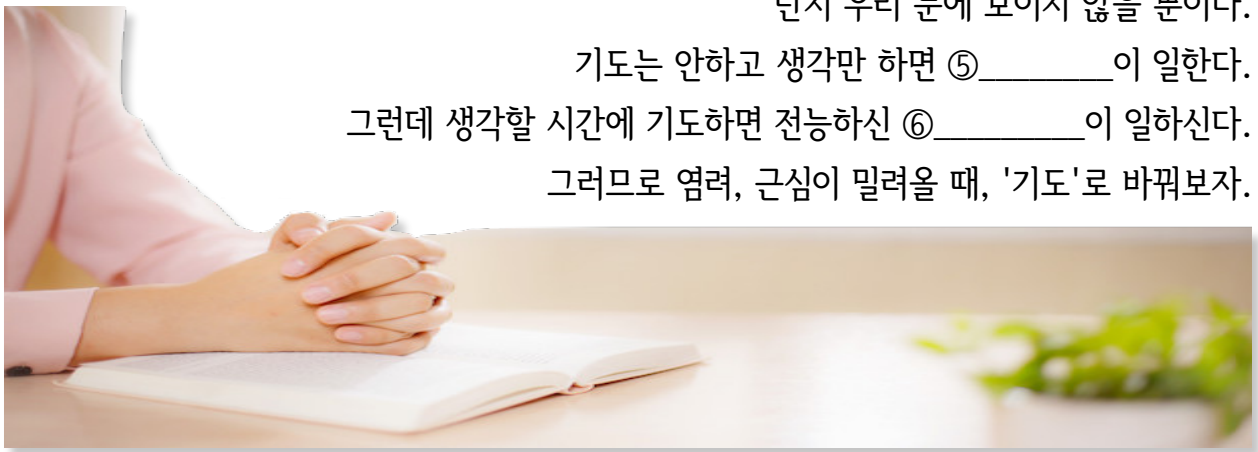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기도는 안하고 생각만 하면 ⑤_____이 일한다.

그런데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⑥_____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이 밀려올 때, '기도'로 바꿔보자.



기도자인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못 보고 눈을 감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남는다. 내가 드린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금제단에 쌓이는 것이지 '바람에 나는 깃털처럼' 절대로 흐트러져 없어지지 않는다.

20년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과의 교전 중 전사한 한 지휘관의 육성이 AI 인공지능으로 복원되어 얼마 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복원된 육성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게 해서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고 한다. 고인은 가고 없지만 그의 음성은 고스란히 남아 그의 투철한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머리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전에 드린 기도를 죽음과 함께 폐기처분하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랫동안 기도응답이 없어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가? 기도를 안하는 것은 아닌데 최근에 기뻐 줄을 놓쳤는가? 본문 계시록 8장을 마음에 깊이 새겨 넣기를 축원한다. 성도들의 기도가 일 반 그릇이 아닌, 금대접에 담겨 있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 번 기억하자.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나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나요?
- 지금까지 드렸던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Yes, No 그리고 Wait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 이시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합니다.